**◉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.**

**1.**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공중접객업에 있어서 고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.

②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③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④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에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
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
**2.** 상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상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소멸한다.

②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③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어음 및 수표행위에 적용된다.

④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대리인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
**3.**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.

②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비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이행장소로 본다.

④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⑤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물건의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
**4.**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,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.

②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.

③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.

④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⑤ 영업과 관련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또는 어음·수표의 발행은 지배인의 권한범위에 속한다.

**5.**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자연인인 상인은 금치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.

② 모든 의제상인은 영업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.

③ 영리법인으로서 회사는 청산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.

④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.

⑤ 국가는 영리사업을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
**6.**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|  |
| --- |
| 영업주 A는 B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등기를 하였다. 그로부터 6개월 후 A는 지배인 B를 해임하였고, B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A의 지배인으로서 C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. |

① 계약체결시 B의 해임등기가 있으나 C가 B의 해임사실을 과실없이 몰랐다면 A는 C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.

② 계약체결시 B의 해임등기가 없고 C가 B의 해임사실을 과실없이 몰랐다면 C는 B의 해임사실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
③ 계약체결시 C가 B의 해임사실을 알았으나 B의 해임등기가 없었다면 A는 C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.

④ 계약체결시 B의 해임등기가 없고 C가 B의 해임사실을 과실없이 몰랐다면 C는 A에게 B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 지배인의 선·해임의 사실은 상대적 등기사항이나 B의 지배인 선임이 등기된 이상 그 해임의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한다.

**7.** 다음 상인에 인정되는 상법규정상의 권리 또는 의무로서 연결이 **틀린** 것은?

① 대리상 - 보상청구권

② 중개인 - 개입의무

③ 위탁매매인 - 매수물의 공탁·경매권

④ 준위탁매매인 - 견품보관의무

⑤ 운송주선인 - 개입권

**8.**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가맹상은 3개월 전에 예고를 하면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 상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.

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.

⑤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**9.**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합자회사는 그 사원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.

②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정되며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
③ 판례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라도 그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
④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회사의 채무에 관한 해당 사원의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.

⑤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.

**10.** 상법상 1인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판례에 의함)

①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.

②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그 1인주주의 손해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③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.

④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.

⑤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.

**11.**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발기인조합은 정관작성, 주식인수 기타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므로 그 법적인 지위가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.

②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여부를 불문하고 정관이 작성된 때에 성립한다.

③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라도 회사의 설립사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.

④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

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.

**12.**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식의 인수, 납입 및 관련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(眞意)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.

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.

③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
④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.

⑤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.

**13.**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금납입에 관한 사안의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 (판례에 의함)

|  |
| --- |
| 甲주식회사의 주식인수인 A는 발기인 B와 공모하여 주금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(20억원)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에 납입하였다. 이후 B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. |

① B의 행위는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.

② 사안의 경우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사안에서 A는 인출된 금액을 甲주식회사에게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.

④ 사안과 달리 B가 납입금 중 3억원을 甲주식회사의 회사채무의 지급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3억원에 대하여는 납입을 가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.

⑤ 사안에서 A와 B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
**14.** 주식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상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.

② 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⑤ 회사의 모집설립시에 인수된 주식 중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부담하는 납입담보책임은 모든 모집주주들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.

**15.** 상법상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실의 인도방법에 의한 교부만이 가능하다.

② 기명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.

③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④ 기명주권의 점유자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.

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.

**16.** 비상장회사에서 상법상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.

② 판례에 의하면 주주간에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양도제한약정을 한 경우 이에 위반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.

③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판례에 의하면 주금 납입 전에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그 양도를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.

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갖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
**17.** 상법상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.

②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.

③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.

④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.

⑤ 정관에 의하지 않고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.

**18.**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.

② 성립 후의 회사에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이사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.

③ 확정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 행해진 신주의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.

④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.

⑤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도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주인수인은 사기,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.

**19.**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주는 교환계약에 정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.

②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그 회사의 모든 주주는 신설되는 다른 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마침으로써 그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.

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한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‧이사‧감사‧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

**20.**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회사가 타인명의로 취득하였고 양도상대방이 자기주식 취득제한의 위반에 대하여 선의라면 취득을 유효로 본다.

②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취득금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.

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.

④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.

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가능하다.

**21.**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
③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려면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⑤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22.**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들로 연결된 것은? (판례에 의함)

① 주주 명의대여자 - 해임된 이사

② 명의개서 미필주주 - 결의에 찬성한 주주

③ 사임한 이사 - 명의개서 미필주주

④ 결의에 찬성한 주주 - 해임된 이사

⑤ 주주 명의대여자 - 사임한 이사

**23.** 상법상 이사의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.

②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.

⑤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해임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**24.**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.

②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④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.

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.

**25.**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
②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.

③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

④ 판례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않는다.

⑤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히 ‘대표이사’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

**26.** 상법상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. 판례에 의하면 통상의 상황에서 회사의 상무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신주발행 ② 중요재산의 처분 ③ 영업양도

④ 목적사업의 변경 ⑤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의 소집

**27.**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.

②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위법 또는 불공정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③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④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
⑤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접 그 이사가 한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
**28.** 상장회사인 甲회사의 회장인 A의 지시로 회사의 이사들이 분식결산을 하였을 경우 회사의 주주들이 A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甲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판례에 의하면 甲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들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회장인 A가 등기이사가 아니라면 甲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④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분식결산을 하게 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⑤ 분식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들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.

**29.** 상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 **않는** 것은?

① 주주제안권의 행사

② 결의취소의 소의 제기

③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
④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

⑤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

**30.**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·주주총회 의사록·이사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재무제표‧영업보고서‧감사보고서를 본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③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‧영업보고서‧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
**31.**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②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.

③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.

④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**32.**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기 위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.

②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특수한 사채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.

③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.

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.

⑤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이 인정되나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.

**33.**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급인이 ‘김갑동’으로 기재된 어음을 실제로 타인인 ‘이을동’이 인수하면 이 인수는 유효하다.

② 어음에 인수의 기재를 한 지급인이 그 어음의 반환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.

③ 인수의 기재의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간주된다.

④ 지급인이 어음의 반환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였더라도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 상대방 이외의 자에게도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⑤ 판례에 의하면 지급인은 어음에 인수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어음외의 서면으로 인수의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.

**34.**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에서 원인채무이행과 어음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 (판례에 의함)

①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할 경우 그 원인채권을 변제받은 사실만으로 어음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
②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변제받고 어음을 유통시키면 채무자에게는 2중변제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.

③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는 때에는 특약이 없다면 이와 동시이행으로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.

⑤ 원인채권의 변제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음이 반환되어 채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인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추정된다.

**35.** 수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은?

① 환어음의 인수와 대비되는 수표의 지급보증을 할 경우 지급보증인은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.

② 수표는 지급증권이지 신용증권이 아니므로 인수금지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지급인의 배서를 금지하고 있다.

③ 수표에는 도난·분실에 대비하여 지급위탁취소제도가 인정되나 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.

④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인의 수표보증을 금지하고 있다.

⑤ 수표에는 등본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복본은 분실의 염려가 있는 국제간 또는 원격지에 송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.

**36.** 어음ㆍ수표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**틀린** 것의 개수는? (판례에 의함)

|  |
| --- |
| ㄱ. 발행인이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발행‧교부한 백지어음을 제1배서인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어음소지인이 수취인을 ‘이성수’로 보충한 후 ‘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이성수’로 정정한 경우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한다.  ㄴ. 무권리자가 수표발행인인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후에 그 회사의 상호변경 전에 적법하게 발행되었던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부분만을 임의로 사선으로 지우고 그 밑에 변경 후의 상호를 써넣은 경우는 수표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.  ㄷ. 약속어음의 양수인이 배서 없이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환수하여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을 때 배서란에 배서하고 기명날인한 경우는 어음의 위조에 해당한다.  ㄹ. 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명의를 변경기재하였다면 어음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한다. |

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

**37.** (ㄱ)-(ㄴ)의 연결이 옳은 것은? (판례에 의함)

|  |
| --- |
| 기발행된 어음금액 1억원의 약속어음에 A가 甲회사 차장인 B와 공모하여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. 이 어음을 9천6백만원에 할인취득한 C는 甲회사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한다. 이 경우 C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( ㄱ )이며, C가 甲회사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환청구 요건을 ( ㄴ ). |

① 1억원 - 갖추어야 한다

② 9천6백만원 - 갖추어야 한다

③ 1억원 - 갖추지 않아도 된다

④ 9천6백만원 - 갖추지 않아도 된다

⑤ 1억4백만원 - 갖추어야 한다

**38.**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A가 어음보증을 하였으며, 그 이후 甲은 이 어음을 乙에게, 乙은 丙에게 각각 배서양도하였다. 이 경우 후자의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
|  |
| --- |
| ㄱ. 乙이 어음과 상환하지 않고서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는데 丙이 다시 甲에게 청구하는 때 甲이 乙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ㄴ. 丙이 甲에게 어음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A에게 청구하는 때 A가 甲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ㄷ. 丙이 甲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고도 다시 乙에게 상환청구하는 때 乙이 甲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ㄹ. 甲, 乙간의 원인관계가 취소된 후 丙이 이 사실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 A가 丙의 청구에 대하여 甲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ㅁ. 乙, 丙간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 때 甲이 丙의 청구에 대하여 乙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|

① ㄱ, ㄴ ② ㄱ, ㅁ ③ ㄴ, ㄷ ④ ㄷ, ㄹ ⑤ ㄹ, ㅁ

**39.** 어음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판례에 의함)

① 약속어음의 발행일의 기재가 어느 해 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어음은 불가능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.

② 약속어음에서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면 이 약속어음은 무효이다.

③ 국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약속어음에서 발행지의 기재는 불가결한 요건이다.

④ 확정일출급의 약속어음에서 발행일의 기재는 어음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.

⑤ 약속어음의 지급장소로서 ‘甲은행 능곡지점’이라고 기재한 경우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이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된다.

**40.** (ㄱ)-(ㄴ)-(ㄷ)의 연결이 옳은 것은?

|  |
| --- |
| 액면 1,000만원의 환어음을 X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최종소지인 Y가 지급인 B에게 인수제시를 하자 B는 600만원에 대하여만 인수를 하였다. Y가 미인수된 400만원에 대하여 X에게 상환청구하자 X는 이를 이행하였다. 이 경우 X는 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( ㄱ )을(를)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또한 Y는 X의 그 후의 상환청구를 위하여 어음의 ( ㄴ )과 ( ㄷ )을(를) 교부하여야 한다. |

① 영수증 - 증명등본 - 복본

② 증명등본 - 영수증 - 복본

③ 거절증서 - 복본 - 영수증

④ 복본 - 영수증 - 증명등본

⑤ 영수증 - 증명등본 - 거절증서

|  |
| --- |
| **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** |